< 제 15 장 >

요 15:2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거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이다.

"붙어있어"(ἐν 엔) : '~안에'. '~와 함께'라는 의미로 단순히 가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외적 동행이 아니라 생명이 연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열매"(καρπός 칼포스)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와 사역의 결과,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결실을 의미한다.

"맺다"(φέρω 페로)는 '가져오다', '인도하다', '운반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도록 드러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지는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깨끗하게 하다"(καθαίρω 카다이로)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가지치기를 의미하며, 이는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을 뜻한다.
제거는 버림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결실을 위한 준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훈련이다.
이러한 은혜의 조건은 '내게 붙어 있으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제거되지만, 명하신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더한 은총을 주신다(구원의 상급).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 구원 안에 있는 자의 '증거'로 드러난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뜻을 따르려는 인간의 선택과 의지 속에서 나타난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적 관계를 의미한다.

생명의 근원이 포도나무에 있듯이, 신자의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다.

따라서 '거함'은 일시적 접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이다.

예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또한 맺을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도"는 세상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무력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삶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결과이다.

요 15:7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ρέμα)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γίνομαι 기노마이)는 '생겨나다', '이루어지다', '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역사하심을 의미한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결과이다.

'구하라'(αἰτέω 아이테오)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간구를 뜻한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행위이다.

'그리하면'(και 카이)은 '그리고', '또한'이라는 의미로 앞의 조건과 결과가 연결됨을 나타낸다.

조건과 응답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먼저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

여기서 "안에"(ἐν)는 '함께', '연합하여'라는 의미이며, "거하다"(μένω, 메노)는 머무르다, 지속하다, 굳게 지키다,라는 뜻으로 지속적인 관계와 동행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이다.

“말”(ῥῆμα, 레마)은 단순한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의미이다.
이는 <요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친히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5절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와 상급의 열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열매는 존재의 증거이며, 관계의 결과이다.

7절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그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
“만일”(ἐάν, 에안)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조건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약속은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말씀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

<레마와 로고스>

“말”(λογος 로고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말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적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계시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로고스’를 통하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의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로, 존재의 근원과 질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말"(ῥῆμα 레마)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특정한 시간과 상황과 때에 맞추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개인에게 적용되어 나타나는 말씀을 의미한다.

'로고스'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현재적으로 드러나고 적용되는 '살아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마'는 '로고스'보다 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적용의 성격을 가지며,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받아들여져 사람의 영을 깨우는 영적 언어라 할 수 있다.

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들려질 때 개인의 삶 속에서 '현재의 말씀'이 된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는데 <히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ῥῆμα)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였고, <롬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ῥῆμα)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리고 깨달아질 때 믿음이 형성됨을 나타내고 있다.

레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로고스'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며, '레마'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적용되어 사람의 마음에 들려지는 '살아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은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를 기초로 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레마'로 깨달아질 때 참된 믿음으로 나타난다. 기록된 말씀 위에 서지 않은 '레마'는 기준을 잃고, '레마'로 살아나지 않은 '로고스'는 생명력을 잃는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ῥῆμα)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 곧 주어진 일을 알고 그것을 굳게 지켜 행하는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오시어 나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

요1:14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말씀에서 '거하시매'(ἐσκήνωσεν, 장막을 치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하시는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덮고 있는 외적인 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요15:7 “너희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은 단순히 함께 계시는 차원을 넘어 성령께서 사람의 삶과 존재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인 임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요1:14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하시는 공동체적 임재라면, 요15:7의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개인의 삶과 사명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보다 깊은 차원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 15:10 내가 아버지의 계명(ἐντολη 엔톨레)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4절 너희는 내가 명(ἐντέλλωμαὶ 엔텔로마이)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ἐντέλλωμαὶ 엔텔로마이) 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목적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이다.

<명령과 계명>

“명령”(ἐντέλλομαι 엔텔로마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이다.
“계명”(ἐντολή 엔톨레)은 ‘명령’에서 파생된 단어로, 신의 명령이나 통치자의 위임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나 법을 의미하며, 삶 전체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권위로부터 나온 명령의 내용이다.

신약에서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직접 명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와 같은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계명’은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는 삶의 방식과 관계의 질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말씀들이 그것이다.

이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규정하는 '관계의 기준'이다.
따라서 '계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며(keep), '명령'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do).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의 완성'이다.
'계명'은 방향을 세우고, '명령'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이 '명령'(ἐντέλλομαι)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지만, 거역에는 저주가 따르게 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에 저주를 받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기에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순종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이다.

요 15: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기서 "친구"(φίλος 필로스)는 '필레오'(φιλέω)에서 파생된 단어로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사랑"(φιλέω 필레오)은 관심과 돌봄, 환대의 의미를 포함하며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애착과 정을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필로스'는 단순한 인간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속에서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며, 이는 감정적 친밀함을 넘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신 말씀은 순종을 통하여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요 15:16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는 말씀은 사역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사역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영육 간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의미이다.
택하심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명을 전제로 한 부르심이다.
또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열매 맺는 사역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의미한다.
사역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요 15:18-27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구약을 인용하시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심.

(시35:19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0절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20절 "지키다"(τηρέω 테레오)는 '보존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와 함께 '지켜보며 트집 잡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그 말씀을 트집 잡아 박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같은 방식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제자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그 삶의 중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명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며,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며, 바로 그 열매가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